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20期(2026.11.06) WWW.MINGHUI.ORG 한글판 1084호 minghui.or.kr



▲ 10월 24일, 캐나다 몬트리올 파룬궁수련자들이 도심에서 박해 반대 및 초국가적 탄압 반대 퍼레이드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중공의 만행을 널리 폭로했다.

주 요 내 용

【수 련】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를 외우며 자신의 근본 집착을 찾아내다

【수 련】 명혜망 접속 전후로 정념을 발할 때 본 광경

【수 련】 공안의 감시 및 수사 관점에서 본 휴대폰 안전

【수 련】 15일간 정사(正邪)간의 대결

〈목차〉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 3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 8

수련교류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를 외우며 자신의 근본 집착을 찾아내다 … 10
명혜망 접속 전후로 정념을 발할 때 본 광경 …… 14
박해받는 수련생 가족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 15
수련생이 시련에서 벗어나도록 돕다 …… 26
공안의 감시 및 수사 관점에서 본 휴대폰 안전 …… 31
수구(修口)의 중요성 …… 46
15일간 정사(正邪)간의 대결 …… 48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10월 28일, **일본**에 거주하는 파룬궁수련자 류시웨(劉希月), 장이원(張一文), 장수후이(張述慧), 궁진쥔(龔金均)은 도쿄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활동을 개최하고 중국공산당(중공)에 부당하게 감금된 가족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히 성원하기 위해 달려온 즈시 시의회 의장 마루야마 하루아키(丸山治章), 욧카이치 시의회 의원 오기스 토모유키(荻須智之), 그리고 야마토 시의회 의원 나카무라 카즈오(中村一夫) 등 세 명의 의원도 대사관 앞 항의 활동에 참가했다. 그들은 중공의 박해 행위를 규탄했으며, 부당하게 감금된 모든 파룬궁수련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권고서'를 낭독하고 이를 중국대사관 우편함에 넣었다. 즈시 시의회 마루야마 의장은 중공이 수련자에게 고문을 가하는 행위와 국가가 주도하는 '생체 장기적출' 범죄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이미 인간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악행에 침묵하는 것은 묵인하는 것과 같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그는 중공의 행위는 "광기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마루야마 의장은 2014년부터 관련 계몽 활동에 힘써왔다. 그는 미국 상원에서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된 것과 대만의 입법 진전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도 표출했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이미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저는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더욱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일본도 장기이식과 인권 유린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을 반드시 확실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10월 24일, 일본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아이치현 이나자와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7회 이나자와시 복지 축제에 참가했다. 수련자들은 부스에 '파룬궁 무료 공법교습',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궁 5장 공법 소개' 등의 내용을 배치했다. 많은 행사 참가자가 어디서 공법을 배울 수 있는지 문의했으며, 향후 무료 공법교습반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4, 50세쯤으로 보이는 아사이(淺井) 씨는 수련자가 건넨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받고 수련자들의 공법 동작을 본 후 즉시 수련자에게 말했다. "저는 (파룬궁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요?" 수련자는 그에게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근처의 이나자와시 근로복지회관에서 무료 공법교습반이 있으니 참가를 환영한다고 알려줬다. 그는 듣고 매우 기뻐하며 공법을 배우러 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장 근처에 사는 모리모토(森本) 씨가 특별히 파룬궁 부스를 찾아와 자신이 아는 수련자를 만났다. 그는 자신이 대만과 중국에서 총 19년간 일했기 때문에 양측 상황을 비교적 잘 안다고 소개했다. 수련자는 그에게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원인과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떠날 때 그는 수련자들을 격려하며 말했다. "여러분 힘내세요!"

24일과 25일, **스웨덴** 최대 규모의 건강 박람회(Harmoni Expo)가 수도 스톡홀름 북부 솔나에서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들의 부스는 주최 측에 의해 유동 인구가 많은 무대 근처에 배치됐다. 박람회 기간 수련자들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연공 시연은 주변의 소음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많은 방문객

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했다. 시내 중심가 근처에 사는 한 스웨덴 여성이 갓 구매한 '파룬궁' 책을 들고 말했다. "'진선인(眞·善·忍)' 이 세 글자는 에너지가 매우 강해 저를 직접적으로 감동하게 했고, 온몸에 열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돌아가면 먼저 이 책을 읽고 책에 있는 공법교습 그림을 본 다음, 연공장에 가서 연공을 배울 것입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감과 소속감을 찾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10월 24일과 25일, **스페인** 파룬궁수련자들은 마요르카섬 잉카(Inca)시에서 열린 '대지 시장(Feria de la Tierra)'에 초청받아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의 부스는 중심 광장 구역에 마련됐다. 이틀간의 행사에서 수련자들은 파룬궁의 5장 공법을 지속적으로 시연하고 무료로 공법교육을 했으며, 많은 행인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다가 그 자리에서 배웠다. 근처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공법을 배운 후 좋은 친구들을 불러와 함께 체험하기도 했다. 마요르카 주도 팔마(Palma) 주민 비키(Vicky)는 부스를 지나가다가 상서로운 장면에 이끌려 공법을 배우는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다. 연공이 끝난 후 비키가 말했다. "연공 과정이 평온하고 상서로워 무척 즐거웠고, 한 시간 내내 더 연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룬따파의 '진선인' 원칙을 이야기하자, 비키는 이것이야말로 생활 속에서 응당 따라야 할 처세의 도리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들과 함께할 때 저는 특히 '인(忍)'을 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의 마음가짐과 방식을 바꾸려고 시도한 후, 아들의 태도도 그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월 11일, **우크라이나**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3년 만에 처음으

로 수련심득교류회를 개최했다. 현지 상황을 고려해 이번 교류회는 온라인과 현장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키이우, 오데사, 드니프로, 하르키우 등 도시에서 온 수련자들은 각자 거주하는 도시에서 모여 참가했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수련자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시 참여했다. 총 18명의 수련자가 전쟁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심성을 제고하며 시민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전한 수련 체험을 공유했다. 교류회에서 수련자들은 4년 전 전쟁 발발 이후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심성 요구를 고수하고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이행한 과정을 교류했다. 외부 상황은 엄중하지만 수련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안으로 찾고 타인을 선하게 대하는 수련 원칙은 시종일관 변함없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Oleksandr)는 1년여 전 파룬따파를 접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련 후 곧바로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며 부정적인 생각과 소극적인 감정이 점차 사라지고 정신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선량해졌고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개선됐다. 과거에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의 걸지 않아 모자 관계가 다소 소원했다. 수련 후 그의 태도는 변했고 어머니를 존중하고 효도할 줄 알게 됐다. 동시에 그의 건강 상태도 개선돼 피로감이 말끔히 사라지고 전신이 가벼워졌으며, 예전에 앓고 있던 만성 질환인 C형 간염도 점차 나아져 완치됐다.

10월 16일~18일, **멕시코** 파룬궁수련자들은 멕시코 토레온시의 안토니오 나로 자치 농과대학 라구나 캠퍼스에서 대체요법 및 건강지도센터(CETAOS)가 주최한 행사에 참가해 시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알베르토 플로레스 올리바스 총장, 에드가르도 세르반테스 알바레스 라구나 캠퍼스 주임, 그리고 마리아 이사

벨 블랑코 대체요법 및 건강지도센터 책임자는 개막식에서 다른 지역 및 국제 참가자들과 함께 파룬궁수련자들을 환영했다. 3일간의 행사 동안 수련자들은 매일 네 시간대로 나누어 파룬따파 5장 공법을 시연했다. 공법을 배우러 온 사람들은 파룬따파가 그들의 삶에 가져다주는 이점에 대한 수련자들의 소개를 들으며 공법을 배웠다. 일부 시민들은 또한 파룬따파의 진선인 이념이 가정과 사회 전체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수련자들에게 말했다.

2026년 9월과 10월, 멕시코 파룬궁수련자들은 여러 행사에 참가해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가부좌를 포함한 파룬따파 수련 공법을 소개했다. 수천 명이 참가한 건강대회부터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학 캠퍼스 공법교육 행사에 이르기까지, 수련자들은 공법 시연, 공법교육, 파룬따파 소개를 통해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시민들에게 이 수련 공법을 알릴 기회를 제공했다. 체험한 많은 사람은 연공과 가부좌가 평온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다. 또 어떤 이들은 수련자들에게서 조화로움, 밝음, 그리고 이타적인 봉사 정신을 느꼈다고 했다. 또한 '진선인'의 가치에 공감하며 더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를 알게 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쓰촨성 난충시의 60세 파룬궁수련자 장슈전(張秀珍)은 2007년 파룬궁을 수련한 이후, 수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결장암이 치료 없이 완치됐다. 이후 그녀는 장기간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으나 이로 인해 거듭 박해를 받았다. 2025년 12월 28일, 그녀는 난충시 자링구 천서우루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경찰의 미행을 받고 납치돼 감금됐다. 2026년 4월 1일, 그녀는 자링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기소됐고, 5월 12일과 7월 27일 자링구 법원에서 두 차례 재판을 받았다. 10월 22일, 그녀는 4년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장슈전은 이미 항소했다.

허베이성 바오딩시 칭위안구의 53세 파룬궁수련자 탕룽화(唐榮花)는 2026년 3월 20일 칭위안구 공안분국, 란좡진 파출소와 리좡향 파출소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가택수색과 납치를 당한 뒤 바오딩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최근 가족은 탕룽화가 9월 15일 가오양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고, 10월 20일 3년 10개월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산둥성 라이저우시의 79세 파룬궁수련자 텅춘샹(滕春香)과 76세 파룬궁수련자 왕산화(王善華)는 2026년 10월 18일 다시 납치돼, 10월 20일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1년 3개월을 부당하게 선고받았으며, 현재 그녀들은 산둥성 여자감옥에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다. 2025년 11월 18일, 라이저우시 공안은 텅춘샹의 집에 들이닥쳐 텅춘샹과 그녀의 집에 있던 왕산화를 강제로 끌고 갔으

며, 그녀들의 모든 대법서적과 탁상달력 등 물품을 빼앗았다. 그녀들은 비록 집으로 돌아왔지만 경찰은 빈번하게 찾아와 괴롭혔고, 그녀들을 공안, 검찰원, 법원 등 부서로 끌고 가 심문하며 모함했다.

우한시 파룬궁수련자 왕창정(汪長征)은 납치, 감금돼 1년여간 모함을 받은 후, 2026년 4월 24일 우한시 한양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2026년 10월 23일 왕창정은 한양구 법원에서 부당하게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형기는 2028년 9월 29일에 끝난다. 왕창정(47)은 우한시 둥시후구 우자산에 거주하며 원래 우한시 경찰학교 학생이었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이래로, 그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학적을 박탈당했다. 20여 년간 왕창정은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았고, 두 차례의 부당한 행정 구류, 한 차례의 부당한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으며, 부당하게 4년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5년 3월 31일, 왕창정은 둥시후구 진인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부당하게 가택수색을 당했다. 7월 중순, 왕창정은 둥시후구 징허 구치소에서 우한시 한양구 구치소로 이감돼 모함당했다.

수련교류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를 외우며 자신의 근본 집착을 찾아내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요 며칠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경문을 외웠습니다.

첫째 날에는 첫 번째 단락만 숙지했고 두 번째 단락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에 이어서 외워 두 번째 단락을 숙지했고 세 번째 단락은 덜 외워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을 숙지했습니다. 그동안 한 단락을 외울 때마다 외운 것을 한 번씩 묵서해 봤고 기준에 도달한 후에야 이어서 외웠습니다.

넷째 날에는 다섯 번째 단락을 외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여섯 번째 단락을 외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일곱 번째 단락을 외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전체 경문을 이어서 외우고 이어서 묵서해 봤습니다. 완전히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계속해서 외우고 묵서해 기본적으로 외우기와 묵서 모두 다 맞게 됐습니다. 저는 총 9일(매일 1~2시간)의 시간을 들여 사부님의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이 경문을 다 외웠습니다. 수확이 아주 많아 글로 적어 수련생들과 나누려 합니다.

1. 무엇이 진수인지 깨닫다

경문 첫 구절은 바로 “집착을 하고 법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수련이 아니다”(정진요지 2-원만을 향해 나아가자)입니다. 이 구절을 외우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자신이 진수자라고

여겼지만 법공부할 때 제 상태를 되돌아보면 '나는 반드시 법공부를 잘하고 자신을 잘 수련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주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반드시 법공부를 잘해야 한다, 오직 대법만이 내게 좋은 신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집착심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집착을 품고 법공부를 했으니 이것은 진수가 아닙니다. 이래서야 제가 진정으로 진수하는 대법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28년 동안 어째서 수련의 길에서 항상 순탄치 않고 외부 교란이 끊이지 않았는지 저는 알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제 집착심이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사부님의 진수제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법을 외우는 것은 오직 어떠한 집착도 품지 않고 법공부를 해야만 비로소 진수라 할 수 있고, 자신을 잘 수련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게 일깨워 줬습니다.

2. 근본 집착을 찾아내다

저는 그 시절 온몸이 병투성이라 대법 수련에 들어오게 됐는데, 당시 법공부를 며칠 한 후 치료할 수 없었던 십여 가지 큰 병이 전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수련에서 저는 자신이 수련을 위해 대법의 길을 견지해 걸었다고 여겼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대법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사람 마음이 아직도 제 사상의식 속에 잠복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28년간 누구와 말을 하든 세 마디를 넘지 않아 본론으로 들어가 대법이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했던 것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할 때도 대법이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

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면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늘 대법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제 근본 집착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수련해 원만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몇 년간 제 수련 과정을 되돌아보면 신체가 온갖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상태가 나타났고 수련 전의 바르지 않은 상태가 모두 하나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사부님의 보호하에 저도 모두 하나하나 헤쳐 나왔지만, 이것이 제 근본 집착심을 제거하지 못해 구세력에게 틈을 타게 한 소치임을 시종일관 똑똑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쓰니 제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부님께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까! 사부님, 제자가 사부님께 죄송합니다! 이 못난 제자를 버리지 않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본 집착을 찾아낸 후 저는 강도를 높여 정념을 발해 그것을 멸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고, 제 수련 상태에 천지개벽의 변화가 나타나 신체의 바르지 않은 상태도 사라졌습니다. 더욱 저를 신기하게 한 것은 수년간 내려놓지 못했던 가족 정이라는 고비를 넘게 됐고 평온하지 않았던 가정이 단번에 평온해진 것입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3. 법공부를 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책을 볼 때 난잡한 생각을 하면 그 책 속의 무수한 불(佛)·도(道)·신(神)은 당신의 가소롭고도 가련한 사상을 보고 있고, 사상 속의 업력이 가증스럽게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잘못을 고

집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다.”(정진요지 2-원만을 향해 나아가자)

예전에 법공부를 할 때 생각이 딴 데로 빠지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는데 마치 제가 법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았고, 입으로만 법을 읽거나 눈으로만 법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법에 있지 않은 것 같았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법공부를 해도 법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의 28년을 회상해 보면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매년 견지해 한 번에서 몇 번까지 통독할 수 있었고 ‘전법륜(轉法輪)’을 매일 한 강에서 몇 강까지 통독하며 또 20번 넘게 통째로 외웠으며 다른 경문 등도 일부 외웠습니다. 이치대로라면 제 법공부에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부님의 설법과 대조해 저를 찾아보니 법공부를 해도 법을 얻지 못한 근본 원인은 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하는 데 도달하지 못해 자신의 사상업에 통제당한 것이었습니다. 법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우러러보는 마음을 품고 경건한 마음으로 배워야만 비로소 법의 진실한 함의를 볼 수 있고 대법의 법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념에 이끌려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공부를 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법의 지도가 없으면 수련해 원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근본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이 경문을 외우셨습니까? 다 외우지 못한 수련생은 서둘러 외울 것을 건의합니다! 수확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개인의 작은 체득이니 법에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혜망 접속 전후로 정념을 발할 때 본 광경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 대법 수련은 아주 신성하고 신기하며, 또한 지극히 엄숙하다. 많은 수련생이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많은 수련생은 정념이 아주 강해 사악이 아예 막지 못한다. 그리고 올해 명혜망 중국법회 교류 중, 자료점을 하는 한 수련생이 교류할 때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는데, 그녀는 명혜망에 접속하고 명혜망 내용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줄곧 아주 순조로웠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수련생이 그녀의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하려 할 때야 비로소 자신의 컴퓨터가 아예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현대 과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지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어느 날, 내가 명혜망에 접속하기 전 정념을 발할 때 직접 본 두 가지 기이한 광경이다.

어제(10월 19일) 낮 12시 전 세계적으로 정념을 발할 때, 인터넷에 접속해 다운로드해야 할 것들이 급히 필요했고 또한 시간이 아주 촉박한 상황이어서 정신을 아주 집중했다. 이후 갑자기 직경이 3미터 가량 되는 검은 원기둥이 하나 나타났는데 아주 길었다.

정념의 작용하에 이 검은 '기둥'이 갑자기 갈라지더니, 중간에 밝고 굵은 하얀 '형광등'과 같은 것이 하나 드러났는데 아마도 명혜망으로 통하는 통로인 것 같았다.

계속해서 정념을 발함에 따라 검은 부분이 갈수록 적어지더니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순간 하얀 '형광등'(통로)이 한 줄기 아주 강

한 빛에 휩싸이더니 나와의 거리가 갈수록 가까워졌다. 내 쪽의 인터넷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명혜주간(明慧週刊)' 오디오를 다운로드하는 속도는 그야말로 신속했다. 다른 항목도 신속하게 완성했다.

오후 6시 전 세계 정념을 발하는 시간에 선녀 같은 신선들이 나타났다. 그녀들은 통로 저쪽을 살펴보며 명혜망을 수호하고 있었다. 진지하게 책임지는 그녀들의 모습은 내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나를 감탄하게 했다. '나는 반드시 진지하게 정념을 잘 발해 우리 이 전체를 위해 일부분의 책임을 다하리라.'

이에 앞서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지기만 하면 나는 바랐다. '명혜망이 업데이트됐겠지?' 한 번도 자신의 문제를 찾아본 적이 없이 마비된 채 습관적으로 명혜망 수련생에게 의지했다. 여기서 조건이 되는 중국 수련생들에게도 명혜망을 위해 계속해서 정념을 발해주길 청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정체(整體)이므로, 다시는 중국공산당(중공) 해커가 명혜망 웹사이트 내 이메일에 침입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명혜 편집부와 참여한 다른 모든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허스(佘十)

박해받는 수련생 가족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글/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20여 년 전 불법적으로 강제노동을 당하던 기간에, 나는 외부로 나가 노역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해받아 다리와 발이 모두 부어올랐고 걸을 때도 벽을 짚어야만 했다. 나와 샤오팡(小

芳, 가명)은 한 방에 따로 갇혔는데, 소대장은 내 몸이 회복되면 원래 분대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샤오팡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을 감시하던 주변 바오자(包夾, 파룬궁수련생을 감시하는 일반 재소자)들에게 대놓고 물었다. "이 사람 박해받은 거 맞죠?" 우리는 단 반나절만 짧게 함께 있다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나를 감시하던 바오자가 불평하며 말했다. "샤오팡이 간신히 단식을 멈추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번에 또 단식을 시작했잖아."

그토록 사악한 환경 속에서 비록 바오자들이 확고한 우리 수련생들을 시시각각 감시하며 말을 못 하게 했지만, 우리 서로의 마음은 하나로 통하고 이어져 있어 결코 깨뜨릴 수 없었다. 우리가 서로 눈빛을 한 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큰 격려와 고무가 됐다.

1. 박해받는 수련생의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시내에 나가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시절의 샤오팡을 만났다. 그녀는 우리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점포를 세내어 소품들을 팔고 있었는데, 생사의 고비를 함께 겪으며 걸어온 우리는 만나자마자 유난히 반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얼마 일하지 않고 우리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이사해 다른 장사를 시작했고, 그 후로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혜망 소식에서 그녀의 이름을 보게 됐고 그녀가 또다시 불법 구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즉시 이 일이 그녀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두 차례나 불법 강제노동을 당한 적이 있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아주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이쪽에서 장사할 때 막 유치원에 다녔으니 지금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터였다.

나는 수련생 장(張) 언니와 상의해 아이를 보러 가기로 결정했고, 이 바람을 품자마자 다른 수련생에게서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소를 알게 됐다. 하교 시간에 맞춰 장 언니와 학교 교문 앞으로 갔는데, 학생들이 줄을 서서 한 반씩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다. 키나 덩치도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데다, 우리는 샤오팡의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부모들이 앞으로 나가 하나씩 아이를 데려가는 통에 너무 혼란스러워 정말 절망스러웠다.

그때 장 언니가 한 아이를 쫓아갔고 나도 따라가서 물어보니 정말 그 아이가 맞았다. 잠시 후 샤오팡의 친척이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내가 보기에 아이의 옷이 좀 더러워 보여서 어딘가 남달라 보였다. 우리는 즉시 아이를 데리고 근처 매점으로 가서 간식을 잔뜩 사주었고, 샤오팡네 집 주소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우리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고, 단지 그녀가 장사하던 곳만 집에서 아주 멀었을 뿐이었다. 두 번째로 교문 앞에 갔을 때는 샤오팡의 큰딸이 남동생을 데리러 왔다(당시 큰딸은 중등전문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나중에 다른 수련생 몇 분이 돕고 협조해 준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쳤다). 나를 본 큰딸은 차가운 표정으로 앞으로는 자신들을 보러 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지금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했기에 별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자주 아이들을 보러 가야겠다는 일념을 굳혔다. 기억하기로 샤오팡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적으로 6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보내졌던 것 같다.

사부님의 신묘한 안배 아래, 샤오팡이 불법 판결을 받은 후부터 내 친한 친구 하나가 자기 가게에 와서 장부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

다. 한 달에 300위안을 주기로 했고 시간은 내가 알아서 정하면 됐다. 이렇게 돼서 나는 매달 100위안을 내어 샤오팡네 집에 갈 수 있었다(몇 가지 제약 때문에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는 가지 않았다). 갈 때마다 아이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좀 샀는데, 어른이 좀 고생하는 건 괜찮아도 아이를 너무 서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점차 나와 샤오팡 가족의 관계는 갈수록 가까워졌다. 아직도 한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한번은 전화를 걸어 샤오팡의 큰딸에게 집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남동생과 가게에 있다며 곧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온다고 했다. 내가 미리 그들 집 건물 아래에 도착해 있었는데, 누나와 남동생이 저 멀리서부터 나를 향해 달려오던 그 장면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됐다. 그렇다, 그들은 모두 아직 아이들이었다! 샤오팡의 큰딸은 내 딸보다 겨우 2살 많았지만, 지금은 출근도 해야 하고 남동생 등하교도 챙겨야 하며, 빨래와 밥 짓기까지 하면서 집안을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게 꾸려 나가고 있었다. 샤오팡의 남편은 더욱이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며 가게에서 물건을 팔았다. 나는 두 아이에게 우리 함께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식당에 가서 축하하자며 종종 위로해 주었다.

이 기간에 내 마음이 흔들린 적도 한 번 있었다. 어느 해 겨울밤이었는데, 날씨는 무척 춥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다. 손에 먹을거리를 잔뜩 들고 걸어가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 갈 필요가 있을까? 맛있는 걸 사도 내 아이들에게는 아까워서 못 먹이고 몰래 숨겨두었다가 아이들 몰래 가져가야 하는데 말이다(당시 우리집도 넉넉지 않아서 남편 혼자 돈을 벌며 돈 관리를 했고, 내게 주는 생활비도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계산해 가며 써야 했기에 먹는 면에서 아이들에게도 아주 인색했

다).' 그렇게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샤오팡네 집에 도착해 보니 어린 남동생 혼자만 집에 있었다. 누나는 출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아빠는 더 늦게야 돌아온다고 했다. 밥은 먹었느냐고 물으니 아직 못 먹었고 누나가 돌아와서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장실이 텅 비어 있었고, 나는 그 순간 내 생각에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다.

이 기간에 나는 또 샤오팡의 큰딸에게 엄마를 자주 면회하러 가라고 줄곧 격려해 주었다. 내가 불법 강제노동을 당할 때 그 안에서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 수련생은 대개 박해를 아주 심하게 받아 미치거나 불구가 되거나 심지어 숨지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경찰들에게 엄마를 박해하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집에서도 엄마가 돌아와 돈을 벌며 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라고 일러주었다! 샤오팡의 큰딸도 그 말대로 했다.

샤오팡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 안에서 환경을 아주 잘 개척해 법공부와 가부좌도 할 수 있었고 노동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들도 상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외워 온 수십 명의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명단을 종이 한 장 가득 적어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수련생에게 전해 달라고 내게 건넸다. 일부 수련생이 박해받고 돌아온 뒤 가족들이 두려움 때문에 찾아온 수련생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나는 미리 두 아이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너희 엄마가 돌아왔을 때 내게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된다! 그때 가서 엄마 생겼다고 나 모른 척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샤오팡이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그녀의 큰딸 앞에서 사부님 설법과 연공 음악이 담긴 MP3 및 수련생들의 교류 문장 등을 무사히 샤오팡에게 건네주었다. 샤오팡의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터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지만, 가끔 일찍 돌아올 때 만나면 서로 아주 잘 지냈다.

샤오팡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 나는 그녀의 큰딸에게 200위안을 주며 말했다.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며칠 뒤 엄마가 돌아오면 너희 네 식구가 아래층 작은 식당에 가서 밥이라도 먹으며 축하하렴! 나는 집안일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함께하지 못해.”

이후 내가 샤오팡에게 사부님 설법을 전해주러 갔을 때, 그녀는 그 200위안을 슬며시 내게 돌려주며 자신은 이미 집에 돌아왔으니 수련생의 돈을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때를 끝으로 우리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도 가게를 운영하느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와야 했고, 가게에서 다른 수련생들과 접촉할 수 있었기에 굳이 더 연락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2. 옥중에 있는 수련생의 어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내가 규칙적으로 샤오팡네 집에 다닌 지 약 3~4년 뒤의 어느 날이었다. 단체 법공부를 하던 중 한 수련생이 볼일이 있어 왔다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10여 년의 불법 판결을 받은 A 수련생의 노모가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무척 외로워해 말벗이 돼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해 불법 재판이 열렸을 때 다른 수련생 몇 명이 정념이 부족해 책임을 이 A에게 떠넘겼고, 그로 인해 A가 불법적으로 무거운 판결을 받게 돼 가족들이 아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이 손실을 최대한 만회해 보기로 결심했다. 설령 그 가족들의 마음이 냉담하게 돼 있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감싸 안아 녹일 수 있는 만큼은 녹여보리라 마음먹었다. 이런 목적을 품고 수련생의 안내를 받아 같은 법공부 팀의 장 언니와 함께 먹을거리를 잔뜩 사서 A의 집으로 찾아갔다.

처음 몇 번 갔을 때는 A의 아내와 큰형, 어머니 모두 아주 냉담하고 거부감도 심해서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했다. 두 번 더 찾아간 뒤에야 어르신(A의 어머니)과의 관계가 많이 누그러졌고, 내가 급히 가려고 하면 어르신은 나를 붙잡으며 조금 더 있다 가라고 하셨다. 보통 아침과 점심에는 큰아들이 와서 밥을 해놓고는 가버리기 때문에 집에는 노인 혼자만 남아 있었다. 어르신은 귀가 좀 어두우셔서 두 아들이 어머니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어르신은 무척 쓸쓸하고 외로워하셨다.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남아 있으면 어르신은 마음을 열고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지금의 일, 그리고 집안의 사소한 일들까지 내게 일상적인 대화를 건네셨다. 그때마다 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어르신은 무척 기뻐하셨으며, 점심 식사 시간이 다 돼서야 나는 자리를 떴다. 그 뒤로 또 한 번 갔을 때 어르신이 말씀하셨다. “그 먼 데서 왔는데, 지난번엔 날씨도 그렇게 추웠는데 점심도 안 먹고 갔잖아. 자네가 간 뒤에 내가 며칠 동안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 왜 밥이라도 좀 먹고 가라고 붙잡지 못했을까?” 그때부터 내가 갈 때마다 점심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어르신이 붙잡으시면 어르신과 함께 밥을 먹었다. 보통 큰아들이 아침밥을 지을 때 점심밥까지 같이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데우기만 하면 됐고, 있는 반찬으로 한술 떴다. 밥을 다 먹은 뒤에도 어르신은 내 손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셔서 조금 더 머물며 이야기를 더 나누고서야 갈 수 있었다. 점차 우리는 못 할 말이 없는 나이를 초월한 친구가 됐다.

한번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네가 매번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사 오는데, 내 아들(A)이 예전에 내게 말하길 수련생들

의 돈이나 물건은 절대 받지 말라고 했거든. 내가 자네한테 뭐라도 좀 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아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대략적인 뜻만 기억나고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고는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니 약 한 병을 집어 들고 내게 이 약이 이러저러하게 좋으니 내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셨다. 내 어머니와 이 어르신 모두 혈당이 높으셨는데, 나는 어르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손에 받아 들고 왔다. 그 후로도 어르신은 내게 고구마를 두 번 주셨는데, 고구마 상자에서 이리저리 고르시며 이 고구마가 맛있다고 비닐봉지에 반 이상 담아 주시더니 내가 손에 받아 드는 것을 보고서야 안심하셨다. 어르신은 이것이 예의를 주고받는 일이고 A의 당부도 어기지 않는 것이라 여겨 마음에 흡족해하며 특별히 기뻐하셨다.

어르신 댁에 다니기 시작한 후로는 수중에 돈이 넉넉지 않아 샤오팡네 집에는 한 달 반에 한 번 가는 것으로 바꾸었고, 어르신 댁에는 1년에 4번 갔다. 어르신께 퇴직연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족들이 얕보지 않도록 갈 때마다 사는 물건은 비교적 조금 고급스러운 것으로 골랐다.

어르신이 90세가 되던 해, 한번은 찾아뵙기 전에 어떻게 하면 어르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오늘은 어르신을 모시고 바닷가에 가서 기분 전환을 시켜드려야겠다! 분명 기분이 좋아지실 거야.' 만난 뒤에 우리는 마음이 딱 맞았고, 어르신은 우산을 지팡이 삼아 짚으시고 나는 어르신을 부축해 집 근처 바닷가로 갔다. 어르신은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가 여길 안 온 지가 정말 몇 년은 됐어." 어르신은 가는 내내 이곳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디가 어떻

게 변했는지 내게 이야기해 주셨다. 나는 휴대폰으로 어르신의 사진을 몇 장 찍어 그중 잘 나온 것으로 한 장 골랐고, 어르신이 잘 안 보이실까 봐 아주 크게 인화해서 다음번에 찾아뵐 때 가져다드렸다. 어르신은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알지?” 어르신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셨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넘쳐흘렀다.

겉보기엔 아주 작은 행동 같았지만, 뜻밖에도 이것이 A의 아주 엄격한 두 형을 감동하게 할 줄은 몰랐다. 중공 악당이 연좌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A의 사위가 중공 악당에 입당해 간부로 승진하려던 일이 무산됐고, A의 두 형은 어르신을 뵈러 오는 수련생들에게 그 화풀이를 했다. 한번은 어르신 댁에 갔더니 어르신이 내게 말씀하셨다. “자네 앞으로는 오지 말게. 우리 두 아들이 화가 나서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어.”

어느 날 길에서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아 진상을 알리다가 뜻밖에도 어르신이 말씀하시던 둘째 아들을 보게 됐고, 그도 나를 알아보았다. 내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묻자 그는 아주 좋으시다고 답했다. 나는 그에게 어르신 말씀이 형제분이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셨다길래 나도 감히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물었다. “우리 어머니 사진 찍어준 그 분 맞죠?” 내가 “맞아요”라고 답하자 그가 말했다. “당신은 가도 됩니다.”

또 한번은 A의 큰형이 굳은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우리 어머니 사진 찍어준 그 여자분 맞습니까?” 내가 “맞아요”라고 하자 그가 말했다. “오시는 건 좋은데, 어머니한테 당신들 그 일(대법 진상을 가리킴)은 말하지 마십시오.” 점심 식사 시간이 돼 내가 가려고 하자 A의 큰형이 말했다. “여기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지

난 몇 년간 우리와 함께 어머니를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어느 날, 나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느껴 용기를 내어 진상 편지 한 통을 썼다. 어르신과 큰아들이 긴장하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식 편지지를 쓰지 않고 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쓰다 남은 일기장 속지를 사용했다. 봉투도 쓰지 않고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쓰던 색종이를 이용해, 수련생의 수정을 거친 편지를 작게 접어 감싼 뒤 어르신께 큰아들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눈빛에 두려움을 내비치며 글을 모르니 내게 물으셨다. “여기에 뭘 쓴 거여?” 내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안에 큰아드님 칭찬을 썼거든요.” 실제로 나는 진상을 알리는 동시에 노인을 효성스럽게 모시는 그의 중화 전통 미덕을 칭찬했고, 아들이자 딸 노릇까지 하며 노인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이해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그해 법정에서 정념이 부족해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수련생들을 대신해 그에게 깊은 참회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번에 내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선물을 잔뜩 들고 어르신을 뵈러 갔을 때, 건물 아래층 돌의자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과 마주쳤다. 어르신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또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 왔구먼! 어서 물건 가지고 돌아가게. 곧 우리 큰아들이 올 텐데, 요 며칠 그 애가 또 화를 내면서 앞으로 누구한테도 물건을 받지 말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어. 식구 중에 딸아이가 무슨 시험을 보는데 또 영향을 받은 모양이야.” 내가 어르신께 그 편지를 큰아들에게 전해주었느냐고 묻자 전해줬다고 하셨다. 큰아들이 그 편지를 다 읽고 화를 내더냐고 물으니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셨다. 어르신은 내게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오지 말게. 천

하가 태평해지면(박해가 멈추면) 그때 우리 다시 보세!" 어르신이 거듭 재촉하시는 바람에 나는 물건을 들고 자리를 떴고, A가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당당하게 걸어 나올 때까지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다.

A가 돌아온 후 주변의 친숙한 수련생 몇 명이 내게 A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다. 그 순간 문득 수년 전의 어느 날이 떠올랐다. 어르신이 방긋 웃으시며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꺼내더니 내게 이름을 그 위에 적어달라고 하셨던 일이다.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중공 악당의 박해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 수련생들끼리도 서로 이름을 묻지 않는데 어르신이 무슨 뜻으로 이러시나 싶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어르신의 그 순수하고 선량한 눈빛을 보고는, 90세 노인이신데 알려드려도 무방하겠다 싶어 내 본명을 그 종이에 적어드렸다. 어르신이 말씀하셨다. "내가 글은 몰라도 자네가 쓴 이 세 글자는 알겠어. ○○○이라고 하는구먼." 어르신이 내게 읽어주셨는데 정말 맞았다. 뜻밖에도 어르신은 그때 내 이름을 적어두었다가 A가 돌아오면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다. 수련생을 통해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그해 A의 큰형에게 썼던 그 편지가 실제로 큰형에게 아주 좋은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켰고, 큰형이 그 편지를 A에게도 건네주어 읽게 했는데 A 역시 그 편지에 매우 공감했다고 한다. 나는 A를 만나지 않았다. 원래부터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며, 단지 수련생을 통해 출옥 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많이 하면서 우선 조급하게 일부터 하려 하지 말라는 말을 그에게 전했을 뿐이다.

수련생이 시련에서 벗어나도록 돕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026년 1월 말(음력 섣달 초며칠) 즈음의 어느 날, 박해를 피해 타지에서 떠돌다 우리 지역으로 온 여성 A 수련생에게 병업가상이 나타났다. 처음 보름 동안은 현지 수련생들이 전혀 몰랐고, A 곁에는 돌봐주는 딸만 있었다. A는 종일 침대에 누워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조금 마셔서 피골이 상접했으며, 다리와 팔은 가늘고 뻣뻣했다.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의식이 혼미해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 마치 곧 숨을 거둘 것만 같았다.

나중에 현지 수련생들이 A의 상황을 알고 그녀를 도우러 갔다. 수련생들이 함께 법공부를 하자고 하면 몇 마디 읽다가 말았고, 법을 듣자고 하면 잠깐 듣다가 이어폰을 빼버렸으며, 연공을 하자고 하면 동작을 모두 잊어버린 상태였다. 수련생이 그녀의 손을 끌어당기거나 들어 올려주며 연공할 수밖에 없었고, 정작 본인은 연공하려는 의식이 없었다. A는 마치 좋지 않은 것에 조종당하는 듯했다.

어떤 수련생은 그녀가 법공부, 연공, 발정념도 하지 못하고 주의식이 불분명해 상황이 위험한 것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정념이 있는 어떤 수련생은 생각했다. '만약 그녀를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면(고향에는 수련생이 없다), 수련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다른 공간의 사악이 기승을 부리며 박해할 것이다. 게다가 현지 경찰의 교란과 박해까지 더해질 텐데.' A가 돌아간다면 상황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었다.

A는 오랫동안 타지를 떠돌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매

우 힘들었고, 오랫동안 잘 먹지 못해 영양 상태가 나빠 몸이 허약했다. 게다가 사악의 박해까지 더해져 정신적 압박이 매우 컸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A가 줄곧 세 가지 일을 견지하며 지금까지 수련을 이어온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부님의 보호가 있었기에 그녀는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사부님께서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녀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현재 그녀의 상태는 구세력이 박해해서 만들어낸 가상이다. A는 사부님께서 선택하신 정법시기 대법제자이고, 세상에 온 것은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이지 구세력의 박해를 감당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법제자로서 오직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융할 뿐이다. A의 집착과 부족함을 보지 않고, 오직 그녀가 사부님께서 선택하신 정법시기 대법제자라는 점, 그녀에게 대법을 수련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점만 보았다. 우리는 무조건 구세력의 안배를 부정하고, 수련생을 파멸시키고 중생을 파멸시키려는 구세력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게 해야 했다. 수련생을 도와 정념을 강하게 하고,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거대한 흐름 속으로 돌아오게 해야 했다.

이와 동시에 A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수련생도 자신의 관념이 이기적이며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일을 아는 몇몇 수련생은 모두 힘을 실어 발정념을 하고 구세력의 안배를 부정해, A가 시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정념이 족하기만 하면, 사부님께서 우리가 정념으로 사악을 제거하도록 도우시고 A가 시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아는 수련생들은 발정념을 시작했고, 저녁 단체 법공부 시간에 발정념을 하는 것 외에도 평소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발정념을 했다.

섣달 말, 현지의 더 많은 수련생이 교류한 후 A를 위해 발정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전체 수련생은 A를 돕기 위한 발정념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발정념의 강도를 높였다. 어떤 수련생은 발정념을 할 때 A 주위가 검은 물질로 둘러싸인 것을 보았고, 정념을 발한 후 그 검은 물질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 수련생들은 A를 위해 발정념을 하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평소 타지에서 일하다가 설을 쇠러 돌아온 몇몇 수련생도 이 사실을 알고 A를 찾아와 함께 발정념을 했다.

수련생들은 A를 위해 발정념을 하는 동시에, A의 거처로 가서 그녀를 이끌며 함께 법공부, 연공, 발정념을 했다. 처음에 A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거나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고, 수련생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시키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체 수련생이 A를 위한 발정념을 중시함에 따라 A의 공간장 속 사악이 점차 제거됐고, 수련생이 A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라고 하자 그녀는 침대에 앉아 반복해서 외웠다. A의 주의식이 점차 강해졌고 서서히 그녀는 침대에 앉아 법공부와 발정념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사람을 알아보고 말도 할 수 있게 됐다.

초기에 A는 서지도 걷지도 못했고 온몸에 힘이 없었으며 연공 동작도 모두 잊어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수련생들은 그녀가 사부님의 도움 아래 반드시 연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천천히 조금씩 그녀의 연공을 도왔다. 특히 B 수련생이 그녀의 연공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

A의 주의식이 강해져 법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B는 그녀를 이끌고 연공을 했다. B는 예전에 정념정행으로 몇 차례 병업

고비를 돌파한 경험이 있었기에 A가 연공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자신감이 있었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A가 허리가 아파서 발을 침대 위에 올리면 침대에서 일어나 앉지 못했고, 발을 바닥에 내리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을 수 있었다. A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둔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자 발이 붓기 시작했다. B가 A를 보러 갔을 때 딸이 말했다. “우리 엄마 발이 부었어요. 늘 발을 낮은 곳에 두려고 하세요. 그래야 발이 좀 편안하시거든요.” B는 말했다. “수련은 편안함을 생각하면 안 되고 고생을 겪어야 해요. 늘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야 되겠어요?” B는 말하며 A를 안아 침대에 올리고, 다리도 침대 위로 옮겨 가부좌를 하게 했다. B도 그녀 곁에서 함께 가부좌를 했다. 처음에 A는 가부좌 수인조차 잊어버렸고, 두 팔에 힘이 없어 지탱하지 못해 올리자마자 바로 떨어졌다. B는 “견지하세요!” 라고 말했고, 그녀의 손이 떨어질 때마다 B는 견지하라고 말했다.

며칠을 견지한 후 A는 정상적으로 가부좌를 할 수 있게 됐고 발의 부기도 사라졌다. A가 설 수 없었기에 이 기간 동안 그녀의 동공(動功)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동작만 흉내 내며 연마했다.

A가 침대에서 가부좌를 할 수 있게 되자, B는 그녀가 서서 파룬좡파(法輪樁法)를 연마하도록 돕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를 부축해 벽에 기대서게 했다. 처음에는 허리를 벽에 기대고 두 발은 벽에서 거리를 둔 채 비스듬히 서서 포륜(抱輪)을 했다. B는 손으로 그녀의 두 팔을 받쳐 포륜 자세를 유지하게 했다. B는 두 손이 매우 시큰거리고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A가 포륜을 하도록 도왔다. 며칠 후, A는 벽에 기대지 않고 혼자 서서 포륜을 할 수 있게 됐다. 제2장 공법을 혼자 서서 연마할 수 있게 된 후, A는 제1장,

제3장 공법도 혼자 서서 연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4장 공법은 여전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동작만 흉내 내며 연마했다. A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굽혀 쪼그려 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B는 다시 A가 서서 제4장 공법을 연마하도록 도왔다. A는 통증이 두려워 쪼그려 앉으려 하지 않았지만, B는 A에게 쪼그려 앉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며칠 후, A는 제4장 공법도 혼자서 연마할 수 있게 됐다.

A에게 병업 가상이 나타난 지 약 2개월 만에 사부님의 도움과 전체 수련생의 도움 아래, A는 현재 5장 공법을 한 번에 다 해낼 수 있게 됐다. 몸도 점차 정상으로 회복돼 집에서 가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수련생들은 A의 발정념, 법공부, 연공을 돕는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었다. 어떤 이는 돈을 주었고, 어떤 이는 먹을 것을 주었으며, 옷을 주는 이도 있었다. 가사와 목욕을 도와주는 등 최대한 A가 우리 현지 수련생들과 하나의 정체라는 것을 느끼고 대법과 수련생들로부터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A의 몸이 사악의 박해를 당한 후, 현지의 일부 수련생들은 자신을 수련해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수련생의 부족함을 보지 않았다. 오직 법을 가장 중시하며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융했고, A를 전체 수련생의 일원으로 여겼다. 수련생들은 A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을 제고했고, A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으며 이번 박해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해 구세력의 안배를 부정했다. 그러자 사부님께서 A를 도와 이 시련을 해결해주신 것이다.

제자들을 향한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에 감사드리며, 제자들의 제고를 위해 감당하시고 안배해주신 모든 것에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안의 감시 및 수사 관점에서 본 휴대폰 안전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일부 수련자들의 글을 보면, 수련자가 가택수색과 박해를 당할 때 사악은 마치 모든 것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어디가 자료점인지, 어디가 법공부 장소인지, 누가 일반 수련자인지 등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경찰 출동 규모도 달랐고, 자료점을 가택수색할 때는 심지어 특공대(특경)까지 파견했다고 한다. 사실 경찰은 바로 감시 시스템과 빅데이터 통합 정보를 이용해 수사하는 것이다.

예전에 어떤 노련한 경찰은 요즘 젊은 경찰들을 얕보며 "CCTV(감시 카메라)나 확인할 줄 알지"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주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도 사악이 대단하다고 여길 필요는 없다.

전쟁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己知彼, 百戰不殆)'이라고 하듯, 정사(正邪)의 대전(大戰) 역시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공산당(중공)의 악행 방식을 이해하면, 한편으로는 미지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이나 맹목적인 자만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안전에 주의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중공 악당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대외적으로는 비밀에 부치고 은밀하게 진행하며 감히 대중에게 공개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부님의 다방면에 걸친 일깨움과 도움 아래, 나는 각 방면에서 자료를 수집했고 마침내 이 정보들을 퍼즐처럼 맞춰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수련자들이 바로잡고 보충해주길 바란다.

1. '중점 인구'(블랙리스트)

중공 악당은 '중점 인구 관리 규정'을 하달해 정법위(政法委), 공안국, 산하 파출소, 심지어 주민센터까지 이를 집행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제자에 대한 이른바 '관리'는 사실 각종 감시, 괴롭힘, 노크 행동(가택 방문), 심지어 납치 및 감금하는 등 박해를 진행하는 것이다.

'중점 인구 관리 규정'은 대략 1985년부터 있었고 2007년에 개정됐으며, 공안부가 제정했다. 즉, 그들은 공안부 내부 문건을 법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된 문건이 아니기에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어 대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중점 인원'이라는 말조차도 내부 호칭일 뿐 대외적으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전체 공안 시스템은 위에서 아래까지 이 문건을 법 집행의 근거로 삼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해 '중점 인구'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원을 통제하는 것은 곧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안정유지(維穩) 업무'이며, 공안국과 산하 파출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자 그들이 말하는 중요 업무이기도 하다.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공의(公義) 포럼을 검색해보면 된다.

어떤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지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 청원하는 사람, 민주 인사, 이른바 '반동 발언'을 발표한 사람, 파룬궁수련자, 지하 교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 그리고 일부 중대 범죄 용의자 등이다. 이 중점 감시 대상에는 진짜 범죄자도 통제받고 있긴 하지만, 그것 역시 중공이 자

신의 권력과 통치를 유지하기 위함일 뿐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파룬궁수련자와 공산당이 지도하지 않는 교회를 '중점 인구'(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다.

2.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어떻게 감시하는가?

파룬궁수련자의 경우 노출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노출된 적이 있거나,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거나, 납치, 강제노동,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이 블랙리스트의 뿌리는 정법위로, 정법위가 올린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경찰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민센터 직원이 문을 두드리거나, 기차를 탈 때 검문당하는 등은 모두 통제를 받고 있는 것에 속한다.

중점 인원으로 분류돼도 서면 통지를 받지는 않지만, 대개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 알아차릴 수 있다. 핵심 속성은 명단 비공개, 공안 내부망에서 조회 가능, 시스템 내부망에 표시, 동적 통제, 해제 가능, 등급 하향 조정 가능이다. 우리 대법제자 같은 경우는 해제될 확률이 비교적 적지만 위험 등급을 낮출 수는 있다. 왜일까? 정법위가 올린 것이라 경찰은 자신의 밥그릇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감히 해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시스템에서 해당하는 위험 등급이 낮으면 박해가 적거나 아예 박해가 없을 수도 있다.

3.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피지기라고 했으니, 아래에서는 사악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연구해보

겠다.

1) 등급과 처리 방식의 관계 알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늘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경찰이 상관하지 않는다. 사람 표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감시 등급 문제와 관련이 있다. 둘 다 블랙리스트에 있지만 감시 등급이 다르면 경찰의 처리 방식도 다르다.

등급은 상, 중, 하로 나뉘며 어떤 지역에서는 색깔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해 '중점 인물'에 대해 등급별로 경고한다. 색깔은 총 4가지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다. 빨간색 등급에 도달하면 납치하고, 주황색은 통제 및 조사, 노란색은 확인 및 조사, 파란색은 주시 대상 등이다.

등급은 고정불변이 아니며 상향되기도 하고 하향되기도 한다. 시스템에서 감시 활동이 비정상적일 때는 상향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하향된다. 물론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조작자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등급 변화를 조작할 수도 있다. 대략 이런 상황이며 구체적인 실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중공이 어떻게 등급을 나누는지 알기

어떻게 등급을 나눌까? 방법은 이전의 기록을 보는 동시에 휴대폰 데이터와 휴대폰 이동 궤적을 감시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기에 중공 악당은 휴대폰을 감시하고 분석할 만큼의 거대한 역량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위해 기술적 수단을 도입했다. 2012년 이전에는 진둔(金盾,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사용했다. 2012년 이후 악당은 '스마트 경찰 업무'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미 '스마트 공안 중점 인원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중점 인원'을 전면적이고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중점 인물'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상세한 기록이 있는데 성명, 연령, 취미, 쇼핑 플랫폼, 소비 수준 등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들어 있다.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휴대폰 하나만 손에 쥐고 있어도 모든 사생활이 전부 유출된다.



휴대폰으로 유출되는 정보들

3) 악당이 하는 것은 '유죄 추정'임을 알기

어떤 수련자는 수련자들끼리 전화 통화를 할 때 '민감한 단어'만 말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경찰도 바보가 아니고 이 통제 시스템도 바보가 아니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다. 그들은 파룬궁수련자의 모든 활동에 대해 '유죄 추정(有罪推定)'을 하며 이를 '의죄종유(疑罪從有-의심스러우면 유죄로 추정)'라

고 부른다. 정상적인 사회의 수사는 유죄 추정을 하지 않고 증거를 따지며 '의죄종무(疑罪從無-증거가 부족할 때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를 원칙으로 한다. 정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유죄 추정'은 직설적으로 말해 대법제자들 사이의 모든 연락을 그들이 전부 민감한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몇 년 전의 일이다. 설이 지난 후 남방의 두 수련자가 통화하며 말했다. "봄이 왔으니 우리 언제 한번 바람이나 쐬러 가요." 이 말에 대해 악당 인원들이 이해한 바는 이러했다. "이제 통제가 느슨해졌으니 당신들 나가서 불법 활동을 하려 하는군." 이런 해석과 번역은 나중에 경찰이 수련자를 찾아왔을 때 한 말이다.

한 수련자가 다른 수련자에게 말했다. "나가서 사과 좀 사 올게요." 경찰이 추정한 의미는 이러했다. "당신들 자료나 책을 좀 구하려 하는군." 이 역시 경찰이 수련자에게 알려준 것이다. 사실 이 두 수련자는 당시 그저 바람이나 쐬러 가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안 됐고, 악당은 감시 후 그렇게 이해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당의 사고방식이며 '유죄 추정'을 하는 것이다.

사실 악당은 역대 운동에서 항상 이렇게 해왔다. 과거 지식인들이 약간의 의견과 생각을 제시하면 공산당을 전복하려 한다고 몰아붙였고, 결국 대규모 반우파 운동이 시작돼 무수한 지식인이 박해받았다. 거시적 영역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했고 미시적 영역에서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수련자는 결단코 내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수련자가 옳았다.

4) '의심 데이터'가 그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알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감시 관점에서 보면, 만약 수련자들이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더라도 원래 몇 사람의 감시 등급이 높지 않아 예를 들어 '저위험'으로 분류됐다면, 위험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늘 이렇게 연락하거나, 연락한 수련자 중에 위험 등급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시스템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식별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수련자의 감시 등급을 높인다. 등급이 높아지면 경고가 울리며 의심 데이터가 생성된다.

그런 다음 공안국 시스템을 통해 다음 부서로 데이터가 푸시되며, 일부는 수동 심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후 의심 데이터가 파출소 경찰 업무 시스템으로 푸시되고, 파출소 경찰 시스템이 임무를 받으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처리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에 계속 떠 있어서 경찰은 '직무 유기'로 간주돼 점수가 깎이고 상여금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5) 시스템 푸시와 경찰의 '직무 수행' 간의 관계 알기

경찰은 어떻게 '역할을 다해' 감점을 면할까? 방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하거나, 잠복하거나, 임무를 주민센터에 하달하거나, 방문해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시작한다. 자신이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괴롭힘을 끝낸 후에는 중점 인물의 사진을 찍어 상급 시스템에 전송해야 비로소 상급에서 내려온 임무를 완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많은 경찰이 수련자 집으로 달려와 사진을 찍는 원인 중 하나다.

만약 진상을 아는 경찰이거나 진상을 기꺼이 들으려 하는 경찰이라면,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척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

만 진상을 모르거나 파룬궁 박해를 이용해 출세하려는 자라면 추가적인 행동을 취해 박해를 가중시킬 것이다.

6) 자신이 교란받으면 다른 수련자도 직접적으로 교란과 박해를 받게 됨을 알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결부돼 있다. 어떤 수련자는 자신의 정념(正念)이 강해서 두렵지 않다며 휴대폰 안전에 주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휴대폰이 감시당한 후 경찰이 상급의 지시를 받고 괴롭히러 오는데, 이 수련자의 정념이 강해 진정한 박해는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늘 이렇게 경찰이 찾아오면 자신도 교란받기 쉽다.

동시에 자신이 안전에 주의하지 않으면 다른 수련자에게도 연루된다. 당신의 휴대폰 때문에 다른 수련자가 연루돼 경찰이 찾아올 때, 다른 수련자도 정념이 강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만일 자료점과 법공부 장소의 안전까지 연루된다면 어떡하겠는가? 그럼 간접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어떤 수련자는 통화 중에 직접 민감한 단어를 말하거나, 곁에 휴대폰을 두고 민감한 단어를 말한다. 지금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민감한 단어를 분석하고 필터링한다. 이런 경우 직접적으로 표시가 되고 그런 다음 '위험 데이터'가 생성되며, 인터넷감시국은 그 감시 결과를 관련 공안 직원에게 보낸다. 공안은 수동으로 분석하고 추측하며 다음 행동을 취할지 결정한다. '자료점인가? 대형 자료점인가?'

다음 단계로 중대한 사안은 성(省) 공안청에서 감시하고, 사소한 것은 공안국으로 보내거나 공안국에서 파출소로 보내 파출소가 처리하게 하는 등이다. 총괄 임무도 있고 개별 임무도 있다. 일상생

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학생이 QQ 단체방이나 위챗 단체방에 '6·4(천안문 사태)'가 포함된 사진 한 장을 올리면 위챗 단체방은 즉시 차단되고, 심각할 경우 경찰이 불러 면담을 요구한다.

7)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경직성 알기

나는 세무, 공상, 은행의 업무 시스템을 접해봤는데 모두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자료를 푸시한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한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이렇듯 매우 경직돼 있다.

이 감시 시스템은 일단 설정되고 나면 실제로는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이 있어 매우 경직돼 있으니 여러분은 가급적 회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중점 인물에 대한 경고는 몇 명과 연락하거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등급이 올라가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도 엄격한 기준이 있을 것이다.

8) '동적 통제 시스템'의 존재와 행동 방식 알기



동적 통제 시스템 프로세스

이 중점 인물 감시 시스템에는 '동적 통제 시스템'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능이 있다.

(1) 중점 인원 밀집 경고: 위험 정도에 따른 경고 등급을 설정해 구역 내 중점 인원 밀집도가 경고 수치에 도달하면, 중앙 통제 센터에 인원 밀집 경고를 보내 경찰이 사전에 배치되도록 통지한다. 무슨 뜻이냐면, 알기 쉽게 말해 수련자들이 모두 휴대폰을 소지하고 한자리에 모여 휴대폰 신호의 지리적 위치가 일치하게 나타나면 시스템이 경고를 발송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찰의 주의를 끌게 된다. 악당이 마약 사범을 조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다.

(2) 중점 인원 동일 궤적 분석: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나타나면 동일 궤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3) 인원 이동 궤적 분석 및 활동 분석: 중점 인원의 과거 궤적 정보를 읽어 들이고 지정된 시간 내의 인원 궤적 정보를 조회해 화면에서 이동 과정을 시각화해 재생한다.

이 감시 시스템의 기능은 매우 많아 일일이 말하지 않고 몇 가지만 골라 나열했으니 여러분이 참고하기 바란다.

4. 어떤 상황에서 사악이 박해 행동을 개시하는가?

일반적으로 말해, 다른 공간의 요소는 차치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에서 사악이 박해를 일으킨다.

1) 악당 우두머리나 정법위 우두머리가 개인의 권력 등을 위해 파룬궁을 겨냥한 엄타(嚴打·집중단속)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해 하부로 운동을 일으킬 때.

2) 인터넷감시국이 수련자 휴대폰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파출소로 정보를 푸시할 때. 이는 휴대폰을 주의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고발당했을 때 등.

5. 왜 반드시 휴대폰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가?

앞에서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야 구체적인 주제로 돌아왔다. 왜 휴대폰 안전에 주의해야 할까? 일단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당신의 모든 것이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것을 분석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1) 심리적 파괴: 일단 그들에게 감금되면 당신은 상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게 된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둔 다음, 두려움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당신이 무엇이든 다 말하게 만든다.

2) 휴대폰 감청과 활동 궤적을 통해 수련자의 활동을 분석하여 수련자를 박해한다.

그러므로 휴대폰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수련자와 연락해서는 안 된다. 설령 발품을 더 팔더라도 일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다.

3) '중점 인구 관리 규정'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감시하는 것은 해당 인원의 소재지 파출소에서 집행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명 휴대폰을 쓰지 않고 실명 결제로 쇼핑을 하지 않으며 인터넷 유심칩조차 실명으로 쓰지 않으면, 감시 시스템에서 당신을 감시할 수 없어 소재지 파출소에서 당신의 현지 행동 궤적을 조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말로 조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조사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경고하지 않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경찰은 당신이 자신의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간주하고 상관하지 않는다. 특히 진상을 어느 정도 아는 경찰은 눈감아주고 넘어가며 대법에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을 지어 자신과 가족이 응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6. CCTV 감시를 주의하라

수련자는 단체 법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집을 오가지 말아야 하고, 협조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현 단계 상황에서는 협조인을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법의 측면에서 사부님께서는 도처에 꽃을 피우라고 하셨고, 기술적 감시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 협조인이 감시당하면 안면 인식을 통해 협조인이 갔던 곳의 위치가 즉시 파악되기 때문이다. 좁은 범위로 구역을 정한 후 구체적인 주소를 한층 더 특정하는 것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협조인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더더욱 위험하다.

어떤 공안국장이 체포돼 감옥에 갇혔을 때 수련자에게 말했다. “당신들 파룬궁을 겨냥한 유리구슬만 한 크기의 CCTV가 있는데, 설치해두면 대법제자가 지나가다 두 번만 찍히면 시스템에 업로드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CCTV는 ‘특수 감시 대상’에 대해 사용하는 것일 테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7. 다음으로 수련의 관점에서 박해의 원인을 이야기해 보겠다

1) 수련자 간의 관계를 바로잡다

수련자들끼리는 법공부 외에 사적으로 개인적인 일을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몇 사람이 한 법공부 팀을 구성해 명혜망과 연락하면 된다. 진상 알리기가 도처에 꽃을 피워 사악이 찾아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실 서로의 집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화나 위챗에서 자주 심득(心得)을 교류하는 것(물론 은밀하게 자신의 체득을 말하는 것), 수련자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것, 수련자 간에 사적인 일로 연락하는 것 등을 포함해 사실 모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련의 관점에서 볼 때 사부님께서 안배해주신 수련 형식을 바꾸는 것이 되어(우리는 생활 속의 작은 일, 개인적인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만 신은 이를 중대한 일로 여긴다) 구세력에게 박해의 구실을 잡혀 감히 박해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해로, 우리 현 단계의 수련 형식은 바로 단체 법공부를 위주로 하고 교류를 줄이며, 진상 알리기를 도처에 꽃피우고 그 외의 일은 하지 않는 것이다. 수련자들 사이에서 요란하게 굴거나 통합 관리를 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되며, 이 점을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지금 바로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저질렀던 이런 부류의 잘못에 대해서도 안으로 찾아야 한다. 이러한 물질들을 모두 깨끗이 제거해야만 진정으로 사악의 박해를 타파할 수 있다. 만약 사부님의 요구에 엄격히 따라 한다면 틀림없이 매우 안전할 것이다.

2)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하겠다. 어떤 변호사는 비록

수련자들이 부여한 '정의로운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정말로 대법제자를 위해 변호하는지는 여전히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넘겨짚어서는 안 된다. 만약 돈만 받고 일을 하지 않거나, 법정에서 엉뚱한 말이나 수박 겉핥기 식의 말을 늘어놓는다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것일 뿐, 파룬궁 사건이 수임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면허가 취소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변호사는 그저 머릿수만 채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만 받고 진짜 일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기는 꽤 잘해서 매우 바빠 보이고 분주히 오간다. 당연히 이런 돈을 버는 것은 신께서도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집안일의 교란을 매우 심하게 받고 번 돈도 각종 원인으로 다시 잃게 된다. 여러분은 이 점을 주의해서 분별해야 한다.

맺음말

왜 이 글을 쓰는가? 많은 수련자가 휴대폰 안전에 주의하지 않고 감시에 주의하지 않으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포함해 나 역시 이 점 때문에 손해를 봤다. 한때의 편리함을 위해 결과적으로 내게 인위적으로 큰 고난을 더했고 심지어 박해를 불러왔다.

오늘날까지도 어떤 수련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며 통화로 수다를 떤다. 수련자 가족 중 일반인이 보기에도 가슴이 철렁할 정도인데 말려도 듣지 않는다. 아마 휴대폰이 어느 정도까지 감시당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만 일부 수련자들이 진정으로 중시하게 될 것이다.

사부님의 요구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타협해서는 안 된다. 휴대폰에 관한 교훈이 너무나도 많다. 천목(天目)이 열린 수련자는 많은 사악한 생명이 직접 휴대폰으로 환생한 것을 보았는데, 바로 박해 형식을 돕고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다. 외계인은 정법(正法) 중에서 정법에 저촉되며 외계인의 기술(휴대폰) 역시 그 자체가 정법 자체에 저촉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인류를 통치하고 인류를 대체하려 한다.

공산당은 폭력 조직이 법을 집행하고 갱단이 나라를 다스리는 비할 데 없이 사악한 조직이므로, 좋은 사람은 그들에게 빈틈을 파고들 기회나 사람을 해칠 편리를 조금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법제자는 수련 중에서 사악의 조종을 받는 악인의 박해를 부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계 기술의 박해도 부정해야 한다. 휴대폰으로 수련자와 어떠한 연락도 해서는 안 되고, 휴대폰은 가급적 몸에 지니지 말아야 한다. 이는 자신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수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중생구도의 필요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동시에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런 강요된 박해를 승인하지 않고 제거해야 하며, 이 중점 인물 감시 시스템을 겨냥해 발정념(發正念)을 하여 시스템에 고장이 나 감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본문에서 제공한 정보를 믿지 못하는 수련자는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검색 키워드는 '공안 플랫폼, 중점 인물 감시 시스템'이며, 그 안에 상세한 소개가 있다.

이상은 단지 개인적인 인식과 체득일 뿐 층차에 한계가 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수련자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수구(修口)의 중요성

글/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한 가지 문제를 깨달았는데, 바로 수구(修口) 문제입니다. 평소 수련생들과 만날 때도 수구를 해야 한다는 문제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입을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그저 아무렇게나 수구한다고 말만 해서 수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탄탄하고 착실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저는 깊이 체득했습니다. 수구는 표면적인 것이며 주의식(主意識)을 닦고, 사상을 닦고, 마음을 닦는 것이야말로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으로 내면을 잘 닦아야만 비로소 입을 잘 닦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현상을 보았는데, 저 자신을 포함해 수련생들은 함께 있을 때면 뒤에서 다른 수련생이 여기가 안 좋다, 저기가 안 좋다고 말하며, 그는 이런 마음이 있고 그녀는 저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말할 때는 또 자신의 관념까지 덧붙여 부정적인 말로 남을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말들로 자신을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합니다. 무의식중에 이야기의 대상이 된 수련생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밀어 넣게 됩니다. 그도 말하고 그녀도 전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한 번씩 전해질 때마다 각자의 관념이 조금씩 덧붙여집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대상이 된 사람도 입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서로 헐뜯을 때 때로는 아주 온화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부님의 법을 이용해 다투기도 하지만, 사실 이미 구세력이 안배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력이 당신의 마음과 입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수련생들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사상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 문제를 생각할 때가 바로 구세력에게 빈틈을 내주는 기회입니다. 구세력은 내부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여, 결국 수련생을 망치고, 자신을 망치며, 중생을 망치는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사부님께서는 구세력을 인정하지 않으시므로 우리 역시 절대 구세력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부님께서 그렇게 많은 법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닦으라고 하신 것이며, 자신을 잘 닦는 동시에 중생구도를 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수련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있고 공(功)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부정적인 생각을 움직이거나 수련생의 좋지 않은 점을 무심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련하는 것은 우주 대법입니다. 우리가 원만하여 자신의 천체를 주관해야 하는데, 만약 모두 지금과 같은 사상이라면 가령 우리가 올라간다 해도 별들의 전쟁, 우주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올라갈 수나 있겠습니까? 정법은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수련생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토록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더는 내부적으로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진상을 더 많이 알려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수련의 길에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 수련생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얼굴을 마주하고 선의로 지적해 주되, 어떠한 불순물도 섞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수련생을 돕는 것이며 수련생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실 곧 자아를 내려놓고 사람의 이 껍질을 벗어 던져 사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전에 저로 인해 상처받았던 수련생들에게 사

과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수련생 여러분이 정진하고 또 정진하여 더 많은 중생을 구하고, 서약을 실현하며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현재 저의 경지에서 얻은 작은 체득입니다.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글로 적었습니다. 오직 일에 대한 것일 뿐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15일간 정사(正邪)간의 대결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얼마 전, 두 명의 수련생이 납치돼 구치소에 감금됐다. 나는 구출에 조금 참여해 도왔는데, 저녁을 막 먹고 났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냐고 묻자 그들은 파출소에서 나왔다고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그들은 와서 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가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묻자 그들은 수색 영장이 있다고 했다. 나는 얼마 전부터 수련생들과 법적 절차상에서 사악의 박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줄곧 교류해 왔는데, 지금 그들이 '영장이 있다'고 하니 문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법에 대조해 보면, '영장이 있다'고 해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됐다. '영장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교란이 아니라 박해를 위해 온 것이므로 더욱 사악을 저지해야 했다. '영장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온 절차가 합법적임을 증명할 뿐, 그들이 온 법적 근거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세 명이 바디캠을 들고 들어와 (나는 그들을 앉히고 진상을 알리려 했다. 한 명은 앉았고 다른 한 명은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당시의 분위기에 내 마음가짐이 조금 흔들렸다.) 가택수색을 시작했다. 나는 진상을 좀 알렸다. 잠시 후 소장도 왔기에, 나는 그에게 공안부와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14가지 사교(邪教)에 파룬궁이 없고, 신문출판서가 파룬궁 서적의 금지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소장은 듣지 않고 "그런 말은 하지 마. 공안국에 가면 당신이 할 말이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잠시 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서 또 한 명이 오더니, 그가 수색해 낸 대법서적, 플레이어, 컴퓨터, 사부님 법상 등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나를 밤 11시쯤까지 시달리게 하다가 공안국으로 데려가 어떤 심문실로 불렀다. 하지만 방이 좀 이상했다. 정규 인원 배치도 없고 카메라 기록기 하나만 놓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그들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묻든 나는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마침내 그들은 어쩔 도리가 없자 물었다. "아직도 파룬궁 연마해?" 나는 "헌법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역시 며칠 전 명혜망 교류 글을 보고 혜택을 얻어 배운 것이다.) 경찰은 노발대발하며 큰 소리로 "넌 내가 본 파룬궁수련생 중에서 제일 겁쟁이야!"라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이때 왜 당당하게 연마한다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연마한다고 대답하면 그들에게 사교에 참여했다는 증거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사악의 박해를 전면적으로 저지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네 명에게 이끌려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갔다. 세

명이 내 팔을 끌어당겼고 나는 계속 반항했다. 잠시 후 많은 사람이 와서 구경했고 서로 버티며 교착 상태에 빠진 후 나는 피를 뽑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그들에게 협조하지 마세요. 그들이 피를 뽑는 것은 생체 장기적출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이 가짜라는 것도 알렸다. 결국 그들 일행은 도저히 날 끌고 갈 수 없자 흐지부지 돌아갔다.

점심을 먹은 후, 그들은 심문실에서 정식으로 조서를 꾸미기 시작했다. 우선 그들은 공무원증을 꺼내 보였다. 그들이 내게 묻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모두 공무원이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날 심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네가 사교를 이용했기 때문에…”라고 말하자, 내가 물었다. “그럼 무엇이 사교입니까?” 그들은 파룬궁이라고 했고 나는 파룬궁이 사교라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들은 공안부의 파룬궁 단속에 관한 통고와 민정부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연구회 단속 결정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꺼냈다. 나는 말했다.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공안부와 국무원 판공청이 14가지 사교를 발표했지만 파룬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원 신문출판서가 발표한 50호령 제99조와 100조는 이미 파룬궁 서적의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그들은 99년에 이미 단속했으니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헌법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만이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안부와 국무원이 많은 법률과 법규를 제정했는데, 어느 조항에 파룬궁이 사교라고 돼 있는지 지적해 보십시오.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때 그들은 벽에 붙은 ‘고지서’를 가리키며 내게 보

라고 했다. 다 본 후 그들은 “알아들었어?”라고 물었다. 나는 “이해했습니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 역시 사악에 협조하고 박해를 인정하는 것이라 구세력에게 틈을 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앞서 유효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물었다. “네 집에서 수색해 낸 물건은 어떻게 설명할래?” 나는 “유효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대답을 거부합니다”라고 했다. 또 물었다. “넌 파룬궁이 정교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하고는 그들에게 다시 수정하게 했다. “유효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대답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다른 질문도 했지만 모두 이 대답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조서에 ‘이번 심문에서 경찰은 유효한 법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으므로 이번 심문은 불법 심문임’이라고 적은 후 서명해 올렸다.

오후에 나는 또 8~9명에게 이끌려 두 대의 차에 나뉘어 병원으로 보내졌다. 차에 탈 때 내가 타지 않으려 하자 그들은 나를 밀쳤다. 나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치고 싶었지만 다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나중에 차에 타고 나서 틀렸다는 걸, 잘하지 못했다는 걸 느꼈다. 병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중 여러분 모두 와서 보세요. 이 경찰이 좋은 사람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은 파룬궁을 연마하는 자다”라고 하기에, 나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외쳤다.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몰려들자 경찰은 겁을 먹었다. 누군지 모를 사람이 옷으로 내 머리를 뒤집어씌웠지만, 나는 여전히 협조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들은 수갑으로 내 두 손을 채우고 밀

고 당겼는데, 나는 약간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 강제로 피를 뽑혔다.

그 후 그들은 나를 15일간 불법으로 구류했다. 나는 서명하지 않았고, 구류소에 도착해 소장에게 그들이 합법적인 조서 없이 나를 불법으로 감금했으니 나는 연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장은 내게 독방을 하나 마련해 주었는데, 듣자니 이 방의 CCTV는 현지에서만 감시할 수 있고, 다른 방은 시나 성(省)으로 전송된다고 했다. 막 들어가서 몇 명에게 진상을 알렸더니 그들은 매우 반감을 보였다. 그중 누군가 내가 진상을 알린다고 신고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 환경은 내가 계속 머물 곳이 아니라고 느껴 단식을 시작해 떠나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생각은 법에 있지 않았다.) 단식한 3일 동안 계속 생각했다. '단식을 7일 하면 그들이 음식물을 주입할 텐데, 게다가 그들은 유효한 조서도 없고 나를 계속 감금할 이유도 없다. 며칠만 더 지나면 나갈 텐데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단식 기간에 구류소의 지도원은 내게 계속 밥을 먹으라며 "당신들은 연공인인데 계속 밥을 안 먹어서 몸이 망가지면 어떡합니까"라고 말했다. 나는 짧은 시간 안에 나갈 텐데 이런 반항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단식을 멈췄지만 연공하고 정념을 발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진상을 알렸는데,그중 몇 사람은 점차 일부 진상을 이해하게 됐다.

그 안에서 '홍음 2-슬퍼하지 말라'가 떠올랐다. "몸이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지 말라 정념정행하면 법이 있도다 조용히 생각해 보니 집착한 일 얼마이더냐 사람마음을 덜면 악은 스스로 패하리라". 최근 한동안 협조인 수련생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반성

해 보았다. 안으로 찾아 내 집착을 찾기는 했지만 법에서 닦아버리지 못했고, 최근 몇 달간 저녁에 동영상까지 조금 보는 바람에 다음 날 연공하거나 정념을 발할 때 흐리멍덩하여 손바닥이 쓰러졌는데, 이것이 모두 이번에 박해당한 틈이었다.

가족 수련생은 어떻게 했을까? 가족은 다음 날 파출소에 가서 상황을 물으며 내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또 가자 구류소에 있다고 알려주어 옷을 한 벌 보냈다. 수련생 몇 명이 와서 가족과 교류하며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할지 의논했다. 한 가지 의견은 즉시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면 빠를수록 다음 박해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행정 구류는 심각하지 않으니 기한이 차면 사람을 풀어줄 것이라고 여겼다. 또 다른 이들은 인터넷에 행정 구류가 형사 구류로 전환된 경우가 많다고 여겼고, 한동안 어느 것이 법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지난번 파출소에 갔을 때 말결에 경찰이 내가 안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은 가족은, 단식하며 박해를 반대하고 있다고 여겨 구류소에 전화를 걸어 가족 면회를 요구했다. 소장은 파룬궁 문제와 관련되니 사건 처리 기관(파출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소장에게 면회를 요구했지만 소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에게 면회를 불허한다는 서면 증명서를 요구하자, 소장은 주지 않으면서 구두 설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가족은 청원국에 가서 상황을 알렸다. 청원국 사람들도 법을 몰랐지만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좀 물어보았다. (나중에 파출소에 갔을 때 그들은 기어이 일을 크게 만들려 한다며 청원국에는 뭐하러 가냐고 가족에게 말했다. 보아하니 사악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결국 가족 면회

는 허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현지의 일반 변호사를 선임해 접견하려 했다. (몇몇 변호사는 파룬궁 사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맡기를 두려워했다.) 구류소에 도착한 후 소장은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그에게 몇 조 몇 항의 법규를 외워주며 변호사는 접견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파출소에 찾아가라고 했다. 그래서 가족과 변호사는 다시 파출소장을 찾아갔다. 소장은 윗선 지도부와 상의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오가다 보니 어느새 구류 10일이 됐고, 수련생들은 고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변호사와 가족이 파출소에 가서 언제 사람을 풀어주느냐고 묻자 소장은 15일에 데리러 오라고 했고, 가족의 마음은 단번에 홀가분해졌다.

또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14일에 구류소에서 15일 8시에 사람을 데려가라고 통지했는데, 막상 가보니 구류소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파출소에서 올 테니 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가족은 단번에 마음이 흔들려 급히 수련생들에게 연락하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시 나는 생각했다. '설마 나에게 아직 찾지 못한 무슨 집착이 있단 말인가?' 나는 이미 법적 절차상에서 사악의 박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는데, 어째서 아직도 틈이 있어 박해하려 하는지 생각했다. 나는 설령 형사 구류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해서 사악의 박해를 부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소장이 오더니 예전 직장 상사까지 불러서 의례적인 말을 좀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부님의 가지(加持) 외에도, 수련생들의 지속적으로 정념을 발한 덕분이다.

사후에 수련생들과 교류를 거치며, 법에 대조해 전체 과정에서

생각이 일어난 과정을 반성해 보았다. 나는 문을 열어준 것은 잘못이었으며, 처음부터 경찰의 범죄를 저지해야 했고, 그들에게 방문의 법적 근거를 요구해야 했다고 느꼈다. 그들은 보통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유효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의 법률적 각도에서 말할 때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며 파룬궁 수련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강제로 문을 두드려 침입하려 한다면 사악을 폭로해야 하고, 큰 소리로 이웃들에게 그들의 위법 행위를 폭로해야 한다. 나는 이 역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사악의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체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 말하자면, 만약 자신이나 가족이 무의식중에 경찰에게 문을 열어준 후라면, 이때 상대방은 보통 진상을 듣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개인이 말하는 것조차 통제하려 할 것이다. 이때일수록 정념을 더욱 충만히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방면에서 사악을 저지해야 하며, 그들에게 법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계속 법을 어긴다면 윗선에 보고하고 그들의 행위를 고소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

일은 비록 크지 않지만, 매 과정을 꼼꼼히 생각하고 법에 대조해 보기만 하면 모두 법리의 승화가 있을 것이다. 수련생들과 서로 격려하며 함께 정진하길 바란다.



▲ 11월 1일, 일본 히로시마 파룬궁수련자들은 제53회 가베(可部) 공민관 축제에 초청받아 요고팀 공연과 공법 시연, 교류를 통해 파룬궁(法輪功)을 소개했다. 공법 시연에서 진행자는 사람들에게 파룬궁의 특징과 질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를 소개했다. 관객들은 따라 배웠고 많은 시민이 몸이 편안해짐과 '진선인(眞·善·忍)' 이념의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96명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825만 5089명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